

# “한 번의 참기도 위해선 만 번 헛절 해야”

## 불광사 선지식 초청법회

해국 스님(충주 석종사 금봉선원장)

“당신이 눈 감는 날, 깨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 인생은 감정 놀음에 요동치기만 했을 뿐 당신은 삶을 마음껏 살아본 적이 없다고요”.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며 해국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롯이 수처작주하는 삶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스님은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고통과 슬픔을 손님으로 생각하라고 조언했다. 한 번의 참절을 위해서는 만 번의 헛절이 필요하며 부단히 좌절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정진이라고 했다. 9월 21일 불광사 선지식법회에서의 해국 스님을 만나본다.

정리=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인으로 살라. 오늘 법문의 주제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양 다들 착각하고 살지만 부처님 안목으로 보면 내 안의 못된 성질, 화나는 성질, 내 맘대로 되길 바라는 욕망에 따라 나는 감정의 노예로 살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누구이고 내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죠. 이렇게 본다면 눈감는 날, 여러분은 감정의 흐름을 타는다고 소중한 인생을 낭비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 감정에서 벗어나고, 인생의 주인이 되는 길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49년을 길에서 사셨던 것입니다. 이는 인류를 구하는 길이었습니다. 훗날에도 부처님이 걸어간 길이 인류에게 얼마나 희망이 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인 노릇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못된 성질에 빠져있고 죄업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주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은 108배를 1년 동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겠다 다짐했다가도 얼마 못가서 흐지부지되고 마는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자기 자신, 주인이 맹세하는 것을 오래 지키지 못하고 업을 따라가기 때문이죠. 시간만 되면 업을 따라 가고 싶어지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참 어려운 일인데 1년 뿐인 소중한 인생을 업따라 사느라 낭비하고 있어요.

### 나를 깨우치게 한 성철 스님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본다 하지만 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동진출가한 후 열심히 살아왔지만 돌아보면 그래도 아쉬움이 남는 시간이 있습니다. 절에서 학교를 다녔을 때 글쓰기 동아리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한 아가씨에게 마음을 빼앗긴 적이 있었어요. 고백도 못해보고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혼자서 끔끔 앓은 거죠. 마음이 하도 힘들어 해인사에 계시던 성철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회랑대를 거닐던 스님을 앞에 두고 냅다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세 번했죠. 성철 스님이 탄박에 알아차리시더군요. 가시나 생겼냐고, 그리고서는 저를 데리고 법당으로 가시더니 물건을 가리키며 이게 보이냐고 물으시더군요. 보인다고 했더니 무엇으로 보냐고 물으셨고 전 다시 눈으로 보니까요. 불을 끄셨습니다. 다시 물으시더군요. “이거보이나”. “아니요. 안 보입니다”. “아까 눈으로 본다 했는데 어두우면 왜 안 보이냐. 부엉이나 올빼미는 깜깜할수록 더 잘 보는데 말이다. 눈으로 보는 것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귀로 듣는 것이 귀로 듣는 것이 아니다. 입 역시 마찬가지다.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다. 이 몸뚱이를 끌고 가는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길이 주인으로 사는 길이다.”

성철 스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 처음으로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 아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불교가 서양에 전해진 것이 지난 1백년 역사 중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꼽았습니다. 대개 종교는 자기 것이 옳다고만 주장하죠. 그런 교리 가지고는 세계평화는 물론 자기 가정도 평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두가 한 허공입니다. 똑같아요. 벽을 허물든 아니든 한 법신이죠. 불교 외에는 세계평화 희망이 없다는 걸 토인비는 알아차렸던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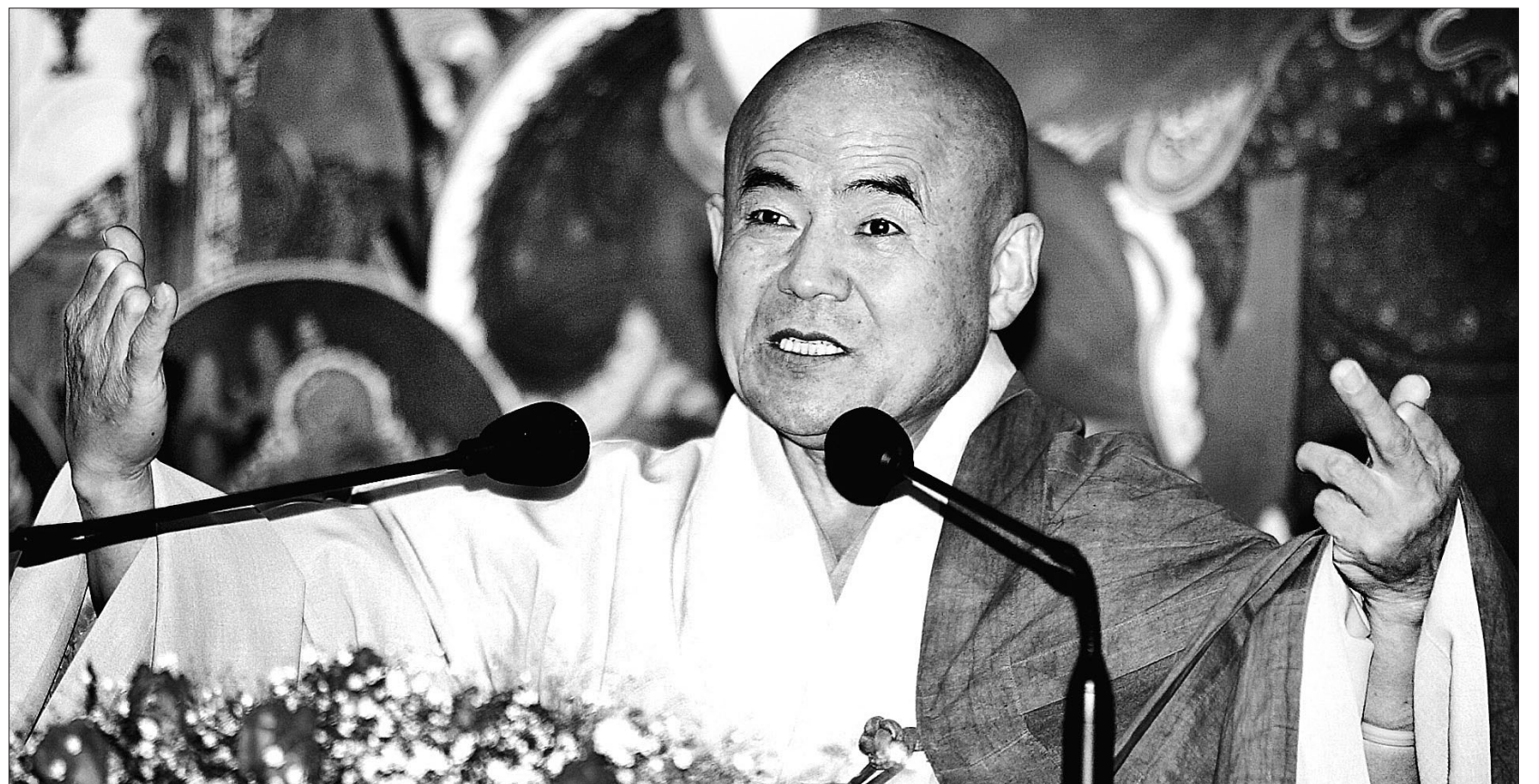
“ 자기 자신 놓치지 말아야 고요 찾아  
고요할 것 없는 본래 고요가 참모습  
수처작주하기 위해서는  
내가 바로 부처임을 믿고  
고통을 손님 맞이 하듯 해야 돼 ”

### 진리는 바로 내 코앞에 있어

불교는 이처럼 내 벽을 허물고 온 우주로 나라는 사실을 이야기 합니다. 수처작주 역시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주인이 되려면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죄가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밤은 어둡지만 태양은 그 빛을 줄인 일도 없고 장소를 옮긴 일도 없습니다. 주위가 캄캄해진 이유는 지구가 태양광명을 안 받아들이겠다고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마음광명을 받아들이지 않은 내가 죄인 것입니다. 마음광명에서 돌아섰던 내가 다시 돌아서면 되는 것입니다. 어둠에는 죄가 없습니다.

주인이 되려면 먼저 믿어야 합니다. 신앙과 신심은 다릅니다. 부처님법은 신앙이 아니라 신심이에요. 신심이란 과연 무엇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부처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감정에 꼬달리는 것, 그것이 죄지 그 감정만 이겨내면 나는 죄



해국 스님은 ... 1961년 일타 스님을 은사로 해인사에서 출가했다. 1970년 성불을 다짐하며 소지공양 이후 태백산 도솔암에서 2년7개월 간 장좌불와 수행을 했다. 1973년부터 1994년까지 해인사, 송광사, 봉암사 등 전국 선원에서 수십 차례 안거에 참여했고 경봉, 성철, 구산 스님 문하에서 수행정진했다. 제주 남곡선원, 부산 흥제사를 창건하고 현재 충주 석종사 금봉선원장이다.

인이 아니고 부처입니다. 어두움이 없어요, 그러나 믿는데서 그쳐서는 안 되고 발심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한국선방문화는 너무 수행으로 치우쳐다보니 삶과 하나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만쪽은 또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수행과 따로 놓고 있어요. 전등불을 켜면 그냥 밝아지는 것이지 불과 밝음은 둘이 아닙니다. 수행도 중생구제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아픔과 함께 갈 수 있어야 수행입니다.

다시 본 이야기로 돌아와서, 죄가 없다는 마음광명을 본인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날마다 운명을 바꿔나가는 것이 주인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페르시아의 시인 루미는 이렇게 읊었습니다.

이 존재, 인간은 여인숙이라  
아침마다 새로운 손님이 당도한다

한 번은 기쁨, 한 번은 좌절, 한 번은 야비함  
거기에, 약간의 찰나적 깨달음이  
뜻밖의 손님처럼 찾아온다  
그들을 맞아 줄거이 모시라(중략)

고통, 슬픔 등을 내 마음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 우리를 깨달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 찾아온 손님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자식을 가운데 부모말 잘 들으려고 온 아이들이 있나요? 뭔가 자기가 받아야 할 것이 있거나 찾아먹어야 할 것이 있거나 할 때 자식들로 태어나는 것이죠.

남과 비교할게 아니라 기쁨, 슬픔을 그저 받아들이십시오. 눈으로 담는 것은 나가는 손님, 귀로 들리는

것은 들어오는 손님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손님대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만큼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이영도 시인의 단풍이란시를 감상해보죠.

너도 타라 여기  
황홀한 불길 속에  
사랑도 미움도  
넘어선 정이여라  
못내던  
그 청춘들이  
사뭇 오르는 저 향로!

단풍이 지는 것이나 새싹이 돌아오는 것이나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 손님이나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를 잘 살펴면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 걸음걸음 진실을 밟으라

제가 소지공양을 하고 태백산 도솔암에서 장좌 불와하며 공부 하려는데 공부 잘 안되더군요. 그래서 절벽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자살시도를 했는데 낙엽 위에 떨어져 살아났죠. 그때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죽일 권리가 없다고요. 나는 내 혼자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가 공기를 만들어 내 코에 넣어준 공력으로 살고, 물이 내 입에 들어와 갈증을 해소해주는 등 우주전체가 나를 왕자처럼 떠받쳐 주기에 내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 자연과 나는 하나였습니다.

부처님 법을 깊이 믿어보면 우리는 희망 그 자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좌절을 안 하는 것이 정진입

니다. 하루를 살되 깨어있는 것이 정진입니다. 그 방법을 실천하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죠.

아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손님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는 눈으로 나가는 손님과 귀로 들어오는 손님을 쥐고 놓아주질 않습니다. 그러면 헛방이 되는데도 말이죠. 마음에 붙들고 있으면 상처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모든 세계가 공적함을 믿어야 합니다. 옛 어록에 어떻게 수행해야하는지를 묻는 제자와 이에 대해 답을 하는 스승이 나옵니다. 스승은 ‘오직 걸음걸음 진실을 밟으라’ 고 답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루하루 내 감정을 따라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 마음 부처를 기쁘게 하느냐 이것을 짚어보는 것입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모를 때는 감정에 끌려가고 있느냐를 살펴보면 됩니다. 항상 자기자신을 놓지 않으면 자기 고요를 찾게 됩니다.

더 이상 고요할 것이 없는 본래 고요가 여러분의 마음고향, 본모습입니다. 좌절대신 희망을 느끼는 것이 여러분의 집입니다. 그것을 위해 내 본래 인격이나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가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주인이 주인 노릇 하기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 번의 참절을 하려면 만 번의 헛절을 해야하고 한 번의 참된 기도를 위해서는 만 번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기안에 망상이 일어날 때 내안에 찌꺼기가 있다는 걸 먼저 알아차리고 그 모습을, 자기 단점을 싫어하지 마세요. 자기의 못된 성질을 사랑하세요. 내 안의 단점도 그대로 날 이르고 와서 이렇게 부처님법을 만났구나하고 생각하세요. 이 단점을 기도로 바꿔 관음보살로 이윅고로 바꿔 수처작주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 책자 안내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4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6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 7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9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예)
  -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책자 안내

-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4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9 팔괘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 조상님의 산소자리가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의 토질로 변화해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4 이장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당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흰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를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영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약중, 기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 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